

· 언론의 독서프로그램 활동 지원방안의 모색

일반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등 언론의 독서진흥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MBC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 및 2003 시작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우리사회의 독서진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바람직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황 금 속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장,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 I. 왜 새삼 독서인가?

독서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다. 방송국에서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각 신문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등 IT분야로 몰던 기사를 매주 주말마다 ‘이제 다시 책이다’란 식의 ‘Books’라는 섹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독서진흥 관련 단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엔 검색포털사이트에서도 독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서란 문자가 발명이 된 이후부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을까?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의 장애요인이 많다. TV 및 각종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시청과 컴퓨터를 통한 오락, 채팅 등 사이버 문화 만연으로 인해 우리의 독서시간이 빼앗기고 있으며, 또한 날로 과도해지는 입시경쟁으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또한 독서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가 중요하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 다가올 미래사회는 문화컨텐츠 기반 경제(Culture Contents-based Economy)로 이행될 전망이다며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미래의 문화사회에서는 독서를 통한 지식 및 정보 획득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경험 등이 매우 중요한 사회이다.

**특 집**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선진 각국은 21세기 국가 비전의 성패가 창의력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독서활동이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우 사회적인 측면에서 독서의 중요성과 그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 독서량 실태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문화 환경조성 또한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국내·외 독서문화 관련 정책 및 활동 사례를 조사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독서문화 관련 활동**

**2.1 국외 독서문화 관련 활동**

1990년대부터 세계 선진국들은 21세기 국가 비전의 성패가 창의력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독서교육 및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독서문화 관련 정책 및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표 1〉 외국의 독서문화 활동**

국별	독서문화 관련 활동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dtime Reading’</li> <li>▪ ‘Book Start’</li> <li>▪ National Literacy Trust의 ‘Reading is Fundamental’,</li> <li>▪ ‘National Reading Campaign’</li> <li>▪ Book Token</li> <li>▪ ‘Reading The Game’</li> <li>▪ ‘헤이온 웨이’ 책 마을 축제</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ading is Fundamental(RIF)의 ‘National Book Program’</li> <li>▪ ‘First Book’(첫 책)</li> <li>▪ ‘Reading On the Knee’</li> <li>▪ ‘Reading Excellence Act’ 제정</li> <li>▪ OCOB(One City One Book)</li> <li>▪ ROR(Reach Out and Read)</li> <li>▪ ‘@your library’ 캠페인</li> <li>▪ ‘No Child Left Behind’</li> <li>▪ Laura Bush Foundation</li> </ul>

3) 본 자료는 문화관광부의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 2006, 2007)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황금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국별	독서문화 관련 활동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ccalaureat(바칼로레아)' 대학 입학 자격고사</li> <li>▪ Savoir Livre의 'Bataille de la Lecture(독서전투)' 프로그램 운영</li> <li>▪ 'Passe-Livre'</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sestiftung(독서재단)의 "유년기를 활기 있게" 독서캠페인</li> <li>▪ '레젠(읽자)' 프로그램</li> <li>▪ '책을 잡아라'</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10분 독서운동'</li> <li>▪ 1998년 초·중·고등학교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li> <li>▪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안' 제정</li> <li>▪ '북스타트지원센터' (비영리법인 설립)</li> <li>▪ '문자·활자문화 진흥법' 제정</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동안 학교도서관에서의 체계적인 독서교육 실시</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혜의 등대'</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신인작가상 공모</li> <li>▪ 유치원에 아동도서 기증</li> <li>▪ 독서토론용 도서 보급</li> </ul>

이상에서 세계 각국의 독서문화 관련 정책 및 활동들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선진 외국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는 그 나라의 독서력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국가 주도하에 지식정보사회 및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즉, 미국의 'Reading Excellence Act', 'No Child Left Behind' 나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문자·활자문화 진흥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유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책 읽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및 성인들의 독서 이탈을 막기 위한 독서문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즉, 영국의 'Bedtime Reading', 'Book Start', 'Reading Champion', 'Book Token', 'Reading is Game', 미국의 'Reading on the Knee', 'ROR(Reach Out and Read)', 'OCOB(One City One Book)', 독일의 '책을 잡아라', 일본의 '아침 10분 독서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넷째, 국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National Literacy Trust', 미국의 'Reading is Fundamental(RIF)', 프랑스의 'Savoir Livre', 독일의 '독서재단(Lesestiftung)'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문화예술 활동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의 The Reading Agency는 문체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으로 다양한 독서관련 멀티미디어 예술

**특 집**

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헤이온웨이’ 책 마을 축제는 하나의 문화축제로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으로 ‘독서전투(Bataille de la Lecture)’를 전개하고 있으며, 독일의 독서재단은 멀티미디어(‘타이타닉’과 ‘한 여름 밤의 꿈’과 같은 영화)와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 신인작가상을 공모하는 등 독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및 교도소 수감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영국의 ‘Book Fund’, The Reading Agency의 프로젝트, 미국의 ‘First Book’)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독서문화에 힘쓰고 있다.

**2.2 국내 독서문화 관련 활동**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율을 살펴보면 성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에 독서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도서관계에서도 각종 독서문화 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관련 법안**

우리나라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독서력이 저하됨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제도적 장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표 2〉 참조)

**〈표 2〉 독서문화 진흥 관련 법안**

명칭	주요내용	비고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li> <li>•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 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li> <li>•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운영</li> </ul>	2006.10. 개정
독서문화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독서진흥정책 근거 마련</li> <li>• 문화관광부에 독서진흥위원회 설치</li> <li>• 문화관광부, 5년마다 국민독서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li> <li>• 전 국민에게 독서교육 기회 제공</li> <li>• 지역, 학교,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li> <li>• 관련 부처간 공조 유도 등</li> </ul>	2006.12. 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li> <li>•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li> <li>•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li> <li>•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 지원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행</li> </ul>	2007. 제정

4) 문화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2007.

최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독서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됨에 따라 독서문화 관련 진흥을 위한 법률안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법률이 제·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이 서로 상충 및 중복될 여지가 있다.

## 2) 도서관계

도서관은 독서문화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도서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도서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여러 독서활동을 통해서 책과의 만남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 독서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국민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독서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도서관 시설 및 장서 부족과 실제 독서관련 활동들에 수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많은 도서관들이 효율적으로 독서관련 활동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 3) 교육계

독서와 관련된 개인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시·도 단위 교육청마다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권고 및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 대입개선안에 따른 '독서이력철'의 도입과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 매뉴얼' 개발,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대전시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독서인증제' 등은 지금껏 학교 독서교육이 입시로 인해 파행을 겪었던 것을 교육당국이 학교 독서를 대학입시와 연계함으로써 고등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으나, 독서활동 조차 입시를 위한 관문이나 학습도구인 '기능독서'로 전락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sup>5)</sup>. 결국 대입 위주의 줄 세우기식 교육 풍토 속에서 강제되고 획일화된 독서교육 방식은 궁극적으로 독서습관을 들이는 최적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서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다.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003년에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6조나 지난 2006년 10월에 개정 통과된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5)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서는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둘째, 독서활동 기록도 봉사활동 기록처럼 형식적 항목으로 전락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독서의 본질- 즉 책읽는 즐거움-을 훼손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이 없다. 다섯째, 출판시장이 왜곡된다.(박흥진·황인회, "도서관 활용 수업의 실제", 계명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등교육연구소, (2005년도 동계 중등교원 도서관활용 수업 직문연수 교재), pp. 86-93)

특 집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률에 의거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독서진흥을 위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벤트성이나 일회성 활동을 지양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한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독서문화 창출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될 필요가 있겠다.

5) 언론계

언론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조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책과 독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이다. 최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가 독서 및 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함으로써 책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언론매체에서 디지털 정보시대의 책과 책읽기의 가치를 주장하고, 앞장서서 본격적인 책읽기운동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책과 독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가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6) 독서관련 단체

최근 불고 있는 독서열풍의 분위기에 편성하여 국내 독서 및 도서관문화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매우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독서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독서관련 단체들은 독서 및 도서관문화 운동에 주력하는 단체와 독서교육을 강조함으로 독서교육사를 양성하거나 독서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는 단체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특히 이러한 단체간 격차가 심하고 연계가 부족함으로 인해 독서 및 도서관 운동이 중복적인 경향을 보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심해 전체적으로 독서 및 도서관 문화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신뢰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sup>6)</sup>. 또한 앞에서 언급한 독서교육사 양성 단체들 외에도 평생교육원에서 이수되어지는 독서지도사의 양성이 또 하나의 독서 사교육 시장을 조성<sup>7)</sup>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sup>8)</sup>, 독서능력 검증 시스템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습독서, 기능독서를 유도함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Ⅲ. 바람직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언

국내·외 독서문화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된 바를 토대로 올바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6) 황금숙,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12), pp. 91-117.  
 7) 독서의 사교육화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이연옥은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독서가치의 왜곡, 둘째, 독서지도사 양산으로 인한 독서의 사교육화 확산, 셋째, 독서교육의 빈익빈 부익부의 초래이다(이연옥,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9) pp. 53-59)  
 8) 199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이 입시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단기간에 성장하여 2002년 말 현재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의 한해 매출 규모는 1조 6,400억원으로 전체 아동의 12%가 독서 사교육시장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은하, 1990년대 한국 아동문학장의 지배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p.46))

### 3.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독서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독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라는 인식하에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즉, 독서라는 행위의 개인적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 개인적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등 공공성과 안정성, 그러면서도 효율성이 함께 보장되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 활동도 독서의 본질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독서의 본질은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다니엘 페낙은 독자의 입장에서 독서의 본질은 무엇보다 '즐거움'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독서는 강요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율성과 독서 후 그 어떤 결과에 의해 평가받아서 안 된다는 무상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sup>9)</sup>.

어린이책 평론가 최윤정은 "독서는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다. 독서는 한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무엇이다."라며 독서의 본질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은 체험에서 얻어진다고 말한다<sup>10)</sup>.

또한 김상욱은 독서의 궁극적 목적은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독서를 통해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양식' 이야말로 독서의 본질이라 말하고 있다. 즉, 독서는 자발적인 정신적 활동으로 독서의 궁극적인 본질이 생각하는 과정 그 자체의 즐거움, 깨달음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자체의 즐거움이라 주장하고 있다<sup>11)</sup>.

이상에서와 같이 독서의 본질은 독서를 하기 위한 기술(skill)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체험을 통한 즐거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독서의 본질을 왜곡한 채 독서관련 정책이나 활동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독서는 삶의 일부로써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9) 다니엘 페낙(Daniel Pennac, 2004) 『소설처럼(Comme un Roman)』에서 독서에 관한 독자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책을 읽지 않을 권리, (2)중간을 건너뛰어 가며 읽을 수 있는 권리, (3)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4)다시 읽을 수 있는 권리, (5)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6)보바리즘에 빠질 수 있는 권리, (6)어떤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권리, (7)중간 중간 발췌해서 읽을 권리, (8)소리내서 읽을 권리, (9)읽고 나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권리

10) 최윤정, 『그림책 : 평론집』, 비룡소, 2001. pp. 32-33.

11) 김상욱. "기호에선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독서의달기념세미나, 2007. pp. 3-19.

### 3.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과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과제를 「독서문화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 관련 법안들(「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이 서로 상충 및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의 경우 보다 실천적인 독서문화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다 성공적인 독서문화 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제별 추진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지자체 등)의 독서문화 진흥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 지역사회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도서관 설치와 장서 확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은 도서관이며<sup>12)</sup> 선진 외국의 독서문화 활동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 구축은 그 나라의 독서력이자 국력이 됨을 이미 앞 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sup>13)</sup>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와 지식과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공공영역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초래되는 독서본질에 대한 왜곡과 독서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독서활동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풍토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교육풍토, 입시제도 등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수행되어지는 독서교육은 강제된 책선정과 강제된 독서활동, 그에 따른 평가 및 결과 위주의 강제된 독후활동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수업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의 기본 독서환경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일이라 하겠다.

4) 직장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직장 내의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민·관 협력활동의 방안의 일환으로 먼저 메세나(Mecenat)에<sup>14)</sup>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독서문화 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1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 2006. p. iv.

13) 공공도서관 범주는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및 문고가 포함된다(도서관법 제2조)

14) 한국에서는 1994년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업메세나협회가 발족하였다. 2003년 현재 회원은 134개 기업이며, 창립 이후 1기업 1문화 운동, 문화예술 운동 체험 모임,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회의의 참가, 메세나 대상 시상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 IV. 마치며

최근 독서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활동 수준은 낮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초 기술로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독서행위란 매우 사적인 행위이지만, 책에 다가가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기본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독서 가치와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의 독서를 위한 공적인 장치는 아직 높아진 독서 욕구를 해결하기엔 현재로서는 아직 역부족이다.

독서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독서를 삶의 기술로서 삼을 수 있도록 독서의 본질에 바탕을 둔 건전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전개와 개선방향

이 석 범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 1. 들어서며

디지털 환경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영상문화도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책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서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활자매체의 독서시간은 세계 평균 독서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연평균 독서율은 76.7%로 성인 4명중 1명은 1년에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